

# 행복한 책 읽기

## 위화의 '허삼관매혈기' <푸른숲 권>

당연한 말이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생명의 증거이자 죽음을 부르는 신호다. 피가 매매의 대상일 때 삶은 잔인하고 비루해진다. 피를 파는 것은 목숨을 파는 것이며 자신을 파는 것이다. 매혈은 현혈과 다르다.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 피를 뽑는 것이다. 매혈을 통해 번 돈으로 재산을 축적하겠다는가. 최악의 생존 조건에 내몰린 사람이 선택한 마지막 연명 수단일 뿐이다.

중국 작가 '위화'의 장편소설 '허삼관매혈기'에 나오는 허삼관은, 그래서 슬프다. 그가 피를 팔고자 했을 때는 늘 가족이 우선이었다. 자신을 위해 피를 팔아본 적이 없다. 동네 미녀 허옥란과 결혼하기 위해, 첫아이를 낳아 자기 뒷줄이 아닌 줄 앞에서도 그의 사고 처리를 위해, 기쁨 때

고 난 허삼관은 예외 없이 승리반점으로 찾아가 엄숙한 의식처럼 주문을 한다. "부은 돼지 간 한 접시와 황주 두 냥, 아, 황주는 따뜻하게 데워서."

그를 통해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건 자연스럽다.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일생을 살아온 남자,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냈던 우리의 아버지를, 집안에 닦아놓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재산목록 1호인 소를 내다 팔고 허름한 장터 구석에서 돼지국밥에 소주를 마시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진다.



문순태

# “문학인생 만년에 후진양성 큰 보람”

## '생오지문예창작촌' 연 문순태 작가

“문학인생 만년에 후진 양성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문학에 열정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타오르는 강’의 작가 문순태(73)씨가 최근 담양군 남면 생오지 마을에 재단법인 '생오지문예창작촌'을 설립했다. 문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생오지 문학의 집(건물 2동과 대지 등 시가 6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을 출연, 이곳에 2년 과정 문예창작대학을 열고 불학기부터 시, 소설, 수필 등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씨는 지난 2007년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이곳으로 귀향했다. 그동안 소설반을 개설해 문학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지도했고 그 결과 15명이 등단의 꿈을 이루었다. “문학은 인문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술입니다. 최근 들어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 문학의 꿈을 접었다가 뒤늦게 글을 쓰고 싶은 문인 지망생이 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씨가 문예창작촌을 설립하고 문예창작대학을 연 이유다. 문씨는 작가로서 드물게 많은 것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사회 정의를 대변하는 기자,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 베스트셀러 작가

- 사재 6억 들여 재단 설립
- 2년 과정 문예창작대학 개설
- 시·소설·수필 각 30명 정원
- 16일 개강 신경림 시인 초청



신경림

등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만큼 돌려줘야 할 책무도 있다고 본다.

문예창작대학은 문단의 대표적인 문인들을 강사로 초빙, 합평회 등 실기 위주의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인으로 등용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서울의 연희문예창작촌이나 강원도의 만해문학마을, 경주의 동리·목월 문학관 등 타 지역은 경쟁적으로 단기 문예학교를 개설해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방이라고 자처하는 광주·전남지역에는 이 같은 교육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생오지문예창작촌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

다.”

올 봄부터 모집하는 과목은 시, 소설, 수필 등 각 30명 정원이다. 전학기에는 입문반, 후학기에 심화반 편성으로 1년 과정을 두고, 이후 등단 준비반인 연구반 1년을 포함, 2년 과정이다. 강의 시간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전학기 개강은 오는 3월16일이다.

강사는 송수권 시인(전 순천대 문예창작과 교수), 강희진 시인(전 광주대문예창작과 겸임교수), 문순태 소설가(전 광주대문예창작과 교수) 차노휘 소설가(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오덕렬 수필가 등이며 매월 유명 문인 초청 특강이 있다. 16일 개강에는 신경림 시인의 특강이 예정돼 있다.

생오지문예창작촌은 앞으로 교육 공간을 확장하여 아동문학, 드라마 등 장르를 늘릴 복안을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속속까지 제공해 문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강 접수는 15일까지 선착순, 문의 061-381-2402. 이메일 (greenlight123@hanmail.net)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아버지가 감춰둔 마지막 힘

에 온 가족이 굶주릴 때, 문화대혁명으로 농촌을 떠나야 하는 아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기 위해, 갑작스런 병으로 신음하는 일락이를 살리기 위해, 허삼관은 기꺼이 자신의 피를 판다.

필요할 때마다 피를 팔아 위기를 넘기는 허삼관은 분명 처량하고 참혹한 인물이지만 꼭 그렇게만 읽히지 않는 데에 이 소설의 매력이다. 피를 팔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을 바라보는데도 독자는 불편하지 않다. 작가의 솜씨 때문이다. 인물들의 어설플 심리 묘사나 불필요한 부연으로 시간을 끌지 않는다. 상황에 맞는 기발한 대화만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끌고 간다. 거침없는 말투지만 해학이 묻어 있고 비극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허삼관의 낙천성에 따스한 인간미까지 스며들었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문화대혁명을 겪는 중국인들의 모습도 예사롭지 않다. 아내 허옥란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장면과 소문이 진실이 되고 마는 혁명기의 인간 군상이 허허롭다. 박쥐같은 인간의 이중성과 부조리한 정치상황으로 빚어진 이데올로기의 허상이 씁쓰레한 뒷맛을 남긴다.

허삼관의 피는 건강한 민중성이며 친근한 가부장성을 상징한다. 평생 가족을 위해 피를 팔았던 그가 육십을 넘긴 인생의 황혼 길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오직 부은 돼지 간과 황주를 먹고 싶어서 피를 팔고자 한다.

하지만 늙은 피는 가구 철에나 쓰일 뿐이라 병원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곁에는 아내 허옥란이 있었다. 쓸쓸해진 남편에게 돼지 간과 황주를 먹이기 위해 승리반점으로 데려가는 아내의 모습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진한 페이소스가 배어있다.

늘 그렇듯 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럽다.

## 자아의 심상, 독특한 울림

###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박후식 시인 '흐르는 강' 출간

“한없이 젖어드는 또 다른 슬픈 얼굴이/ 강물 위에 섞여 저리 흐르는 것은/ 오랜 세월 다지고 굵아지면서/ 버릴 것 다 버리고/ 사랑의 유속으로 저리 흐를 수 있는 것은/ 또 누구의 눈물이라...” ('흐르는 강' 중에서)

197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박후식(79) 시인이 시집 '흐르는 강'(문학의전당)을 펴냈다. 지난 2008년 '그녀의 집에는' 이후 네 번째다.

표제작 '흐르는 강'에는 대상을 바라보는 자아의 심상이 오롯이 담겨 있다. 화자의 섬세한 감정입입은 '고임'을 넘으려는 시작 지향과 맞물려 독특한 울림을 준다.

해설을 쓴 백인덕 시인은 “그의 정서는 언제나 '아쉬움'과 '그리움'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더 또렷하게 영근다”면서 “그 결과 '표현'은 시인의 '자아'를 억지로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소리를 읽어내는 것을 통해 획득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말한다. '흐른다'는 시어가 환기하는 것은 순환과 재생이다. 철학이나 종교적 이념이 아닌 시



박후식 시인

인의 자연체험에서 비롯된 수사다. 궁극적으로 시를 향한 시인의 열망과 원초적 그리움은 '흐름'으로 귀결된다.

“누군가 그리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역(域) 너머 안개 속 미루나무를 응시한다. 비로소 거기 우리의 동자가 있음을 본다.”

박씨의 서정적 감성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로 확장된다. 그 기저에는 타자와 교감하고자 하는 내밀한 목소리가 배어 있다.

완도 출신인 박씨는 고흥여중·화순중 등에서 교장을 역임했고, 한국문인협회·한국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광주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고서로 만나는 5000년 우리역사

### 광주 출신 여승구씨 운영 화봉문고 창립 50년... '한국의 고서 1~6'展

화봉문고에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의 고서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연다. 화봉문고는 광주 출신인 여승구씨가 운영하고 있다.

5일부터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한국의 고서 1~6'전에서 모두 2000~3000여 점의 고서와 자료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를 고서를 통해 살펴보는 '책으로 보는 단군조선' 전이 오는 30일까지 서울 관훈동 화봉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는 '단군조선의 개국과 흥망인간', '고려시대의 찬란한 불교문화', '조선의 개국과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등 7개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1281년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는 단군의 기록이 최초로 나오는데 조선 중종 7년(1512)에 찍은 목판본인 삼국유사 정덕본(正德本) 일부가 이번 전시에서 소개된다.

화봉문고의 5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고서와 자료도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 이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의 고화자본을 모은 '한국의 고화자'전을 비롯해 '한국 문학작품 산책', '한국 교과서의 역사', '고문서 이야기', '무속사상, 그리고 불경·성경·



삼국유사

도교·동학 자료' 등의 전시가 계속된다. 문의 02-737-005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광주 출발 왕복 셔틀 운행 안내

### 광주 - 완도 - 제주항 - 완도 - 광주

셔틀버스출발: 06:00 광천 터미널 내  
셔틀버스도착: 완도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 됨  
쾌속선: 완도 출발 09:00~10:40  
제주 출발 17:50~19:30

소요시간: **1시간 40분**

쾌속선+셔틀버스요금  
편도 **37,000원**(항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단체는문의 후 확정, 완-제, 제-완 편도는 체크바람

### 광주 - 목포 - 제주항 - 목포 - 제주항

셔틀버스출발: 06:40분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e-편한세상 앞  
셔틀버스도착: 목포 국제항 여객선 터미널 앞  
쾌속선: 목포 출발 09:00~13:20  
제주 출발 17:00~21:20

소요시간: **4시간 20분**

쾌속선+셔틀버스요금  
편도 **30,000원**(항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단체 불가, 합인원 및 합인인 대상자들 체크바람

첫날부터 짝~찬 신나는 **제주 여행** 완도 쾌속선 **169,000원~**  
광주 출도착 제주도 2박 3일 매일 출발 **목포 크루즈 155,000원~**

-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트리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석부자테마파크, 올레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 3일자** 교래리 삼나무숲길,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 허브동산, 에코랜드 또는 선녀와 나무꾼, 해녀촌, 친환경농수산물매장

포함시:항-광주-완도,목포 왕복셔틀버스(신선식신용카드결제) TAX, 일정포내에 모든 관광지, 완도상품증서3회, 조식2회, 목포(중식회)조식2회  
불포함사항:가이드탑(1인 10,000원)자유석식당만도터미널-완도항 승선  
현지 직불관광: 신방산 유람선(17,500원)몽골리안비행사(15,000원) 추가비용: 금요일출발 2인원, 토요일출발 1인원 2인실 3인실 3인원

한일카훼리 대리점, 씨월드고속훼리 대리점, 남해고속 장흥해운 취급점 제주배닷컴 www.jeube.com 1644-2261